

서호인의 '소설처럼'



위대한 야구 소설 필립 로스 '위대한 미국 소설'

필립 로스가 1973년 출간한 장편소설 '위대한 미국 소설'의 원제는 'The Great American Novel'이다. 말 그대로 위대한 미국 소설이라는 뜻으로서, 미국의 총체성을 뚜렷하게 밝히는, 그리하여 역사에 남게 된 소설을 일컫는 용어로 쓰인다. 예를 들어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 허먼 멜빌의 '모비 딕', 너새니얼 호손의 '주홍 글자' 같은 작품을 '위대한 미국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소설은 그러니까 배짱 좋은 신인 투수처럼(1973년은 위대한 소설가 필립 로스가 40세 청년이던 시절이었다.) 소설 제목 자체를 'The Great American Novel'로 내놓은 것이다. 작자이거나 평자 아니, 그럭저럭 훌륭한 작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제목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위대한 미국 소설'은 스케일이 상당한 유머로 제목의 육중함을 돌파해 나간다. 치매 환자인 게 분명해 보이는 노인 스미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야구 리그에 대한 기억이 있다. 그것은 패트리엇 리그. 애국자의 리그라는 심상치 않은 이름의 야구 단체는 지금 메이저리그의 양대 리그인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와 다를바 없이, 수많은 야구 단체를 거느리고 술한 경기를 치르며 몇몇 스타를 탄생시킨다.

소설 밖 우리는 그런 리그란 역사상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박찬호 이후 류현진에 이르기까지 많은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애국'적인 활약을 펼친 이유로 미국의 야구 또한 우리 삶과 그렇게 동떨어진 공놀이에 불과한 것은 아니게 되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스미티의 기억에서 재생되는 패트리엇 리그의 스타와 기록, 선수와 구단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더욱 천연덕스럽게 느껴진다. 소설의 중반부에 접어들어 독자는 어느새 패트리엇리그의 팬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사라진 것이다. 리그의 기록도, 리그의 사람도, 리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이.

필립 로스는 그의 대표작에서 누누이 보여 준 것처럼 미국이란 사회의 부조리와 집단이 형성하는 기억과 상처를 과감한 스케일로 다룬다. 사람이 사라지고 다치고 죽는 비극을, 그 모든 기억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희극으로 바꿈으로써, 다시 엄청난 비극적 이야기로 독자를 내몬다. '위대한 미국 소설'은 야구 소설이지만 미국 소설이자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소설이다. 미국이 만들어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이자 현재 미국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 소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야구를 이야기함으로써 가능한 셈이다. 야구 이야기는 곧 미국의 이야기가 된다. 대공황과 2차세계대전과 파시즘의 광풍까지, 야구 이야기는 마치 야구의 기록처럼 소설이 됴으로써 기록한다. 필립 로스는 야구광이자 기록의 제왕이고, 그것을 합쳐 미국 소설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에 못 되지 않는 야구를 즐기는 나라 중 하나이며 미국과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의 흐름에 야구는 빠지지 않고 흔재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야구가 곧바로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야구 대부분을 기억한다. 특히 호남인들에게 야구는 현대사의 다른 이름과 다름이 아니어서 필립 로스의 소설처럼 1980년대 해태 야구는 여러 장르를 통해 극화되기도 했었다. 당시의 야구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위대한 미국 소설'에 등장하는 유대인 구단주 혹은 흑인 프로선수처럼 존재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호남과 호남인이 집단적 상흔을 야구를 통해 표출하고 위안 받으며, 한 시절을 함께 보냈음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프로야구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탄생하였음은 익히 잘 알려진 아이러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권력자는 버젓한 사실을 기억에서 지워 버리려는 습성이 있다. 필립 로스가 그린 미국에서는 '패트리엇 리그'가 그랬고, 전두환이 여태 살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5월이 그렇다. 최근에도 전두환은 그날 헬기 추격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우리는 발표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마도 그것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전두환이 아닐 수가 없기도 하겠으나, 법적으로 확정하지는 못했다. 그런 우리더러 들으라는 듯이 필립 로스는 스미티의 입을 빌어 이렇게 썼다. "예술을 위한 예술 혹은 국민의 자긍심이나 개인의 유명세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 기록을 위한 예술, 모든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배신하는 자들로부터 현재와 과거의 진실을 되찾아 오는 예술"을 쓰겠노라고. 이 소설의 제목이 단박에 정당해지는 순간이었다.

의료칼럼

시력 교정술



김재봉  
신세계안과 대표원장

막이 두꺼운 경우는 라식 수술을, 각막이 얇으면 라섹 수술을 추천한다. 라식과 라섹 수술이 모두 가능하면 직업과 수술 후 휴식 기간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근시 정도가 약할 때는 일반 라식·라섹이 좋다. 또한 라식과 라섹 수술이 모두 어려운 초고도 근시일 때는 렌즈 삽입술이 대안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시력 교정술은 스마일 수술로 안구 건조, 각막 혼탁 및 기타 시력 교정술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라식과 라섹의 장점만을 갖고 온 수술법이다. 일반적인 라식 수술은 각막을 약 24mm 정도 절개해 수술하는 반면 스마일 수술은 1~2mm 정도의 최소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절개량을 줄일수록 각막의 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마일 수술은 라식·라섹 수술에서 발생 가능했던 안구 건조증, 원추 각막, 각막 혼탁 등의 부작용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특히 스마일 수술은 최첨단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는 수술법으로 의료진의 수술 경험과 기술력이 높을수록 뛰어난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수술방법이 다양해진 것은 개개인의 눈 특성에 따른 맞춤 수술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면 된다. 시력 교정 수술도 개인의 눈 상태에 따른 맞춤 수술이 시도될 때 더 효과적인 시력 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최근에 나온 시술법이 가장 좋다고 단정적으

로 말할 수도 없다. 다만 최근의 시력 교정술은 각막의 손상이나 합병증은 최대한 줄이고 수술 후에 교정 시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시력 교정술을 위해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의 성장 상태다. 안과에서는 대개 만 18세 이후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람의 눈이 대개 만 18세를 기점으로 성장이 멈추는데, 시력 변화가 멈추고 최소 6개월 이후에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많은 근시나 난시는 보통 19~20세가 되면 진행을 멈추지만 사람에 따라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시력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안구의 성장이 불규칙한 시기에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면 수술 이후에도 계속 근시로 진행되어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면 콘택트렌즈나 안경 없이 좋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지만 내 눈에 적합한 수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부작용으로 고생할 수 있다. 수술을 받기 전에 나에게 맞는 시력 교정술은 무엇인지, 전문의가 풍부한 수술 경험을 갖고 있는지,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수술 전 정밀 검사가 이뤄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수술 경험은 물론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 성능 좋은 장비 등 모든 것이 준비돼 있는 안과에서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되돌아보며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알지 못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술은 무척 매력 있는 자료이다. 덕분에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깨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는 철저하고 리팻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도 그러했다. 5월 21일 이후 광주 시내에는 더 이상 국가 폭력이 저질러지지 않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나, 광주 외곽은 그렇지 못했다. 5월 21일 오후에 광주 시내에서 물러난 계엄군은 광주 외곽을 철통같이 막아섰다.

국군통합병원 부근과 같은 곳은 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막아섰다. 그 외 지역도 사정은 비슷했다. 광주 외곽의 계엄군들에게는 많은 양의 실탄이 주어졌다. 일이 있어 군의 봉쇄선을 통과하려는 사람과 차량에는 무차별 총격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됐다. 어느새 군의 봉쇄선은 '살과 죽음의 갈림길'이 됐으며, 이 기간 동안 광주는 '육지 속의 섬'이었다.

항쟁 기간에 군이 봉쇄선을 쳐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광주의 소식을 외부로 알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광주의 비극을 짙게 눌러 쓴 유인물을 공중 송신 채로 사선(死線)을 넘나들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은 광주에서 전해진 유인물을 타지로 옮기거나 손으로 베껴 쓴 뒤에 등사기로 밀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유인물은 손에서 손으로, 때로는 컴컴한 어둠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성당에서, 교회에서, 어느 자취방에서 몰래 몰래 숨죽이며 만들어낸 유인물은 그렇게 퍼져 갔다. 유인물

을 받아든 타 지역 사람들은 TV나 신문에 비치는 광주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거나 거짓임을 알게 됐다. 전주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경북 군위에서도 광주의 참상을 전하는 유인물이 발견됐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헛말이 아니었다. 심지어 광주에서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광주 출신의 서울 병원 직원은 헌혈차를 끌고 나와 헌혈을 독려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비록 타 지역은 광주와 같이 시민 항쟁으로 확산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광주를 지우려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광주의 소식을 접하고서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가졌다. 그래서 5월 27일 광주의, 광주 시민들의 항쟁이 무력 진압된 이후에도 또 다른 싸움을 함께해 갔다.

목숨을 내걸고 싸운 광주 시민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광주의 소식을 알리던 타 지역 분들도 목숨을 걸어야 했다. 군경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연행된 사람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눈을 가린 채 끌려갔다. 그리고 햇볕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실 바닥에서 오로지 혼자 국가 폭력에 맞서야 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이 쏟아지는 매질과 모욕을 견뎌야 했다. 단지 5·18을 알리고 광주의 아픔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아야 했다. 타 지역에서 5·18을 알리던 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도 함께 기억되기를 바란다. 40년 전 광주는 고립됐으나 결코 외롭지 않았음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지난 40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40년을 맞는 바람이다.

社說

'4자 협의체' 군 공항 이전 해법을 찾아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4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그제 열린 '광주-전남 상상발전위원회'에서 공개됐으며, 이에 앞서 시도는 국토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4자 협의체인 '공항 관련 정부-광주-전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TF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관련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용역 내용에는 이전 대상지에 대한 소음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대책, 군 공항 인근 특화단지 조성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TF에 공항 문제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참여한 것은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한꺼

번에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관련 부처들이 광주-전남의 공항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군 공항 이전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책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데도 시도에만 맡겨 놓은 채 수수방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이제 특별법 제정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공항 문제 해결에 몰고갈 터야 할 것이다.

5·18 진실 왜곡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범법이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인터넷과 온라인에선 여전히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것도 범법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일보보 전 씨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정,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5·18 당시 희생자 모욕 등의 댓글이 많았다. "광주 헬기 사격 있었다"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징역 2년"이라는 제목의 중앙지 기사에 달린 187개의 댓글 중 최다 추천을 받아 상위에 오른 댓글은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내용이였다.

어느 누리꾼은 '기초소사한 헬기가 몇 번 헬기고 조종사는? 기관총 사수는? 피해자는 유령이나? 아무도 없는 죄 막 뒤집어 씌워라'라는 댓글을 올렸다. 군이 국민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했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비하성 댓글도 줄을 이었다. "검증도 안 된 죽은 신부 명예훼손이 이렇게도 큰 죄인 줄 이제 알았네 ~" 등의 비하성 글들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뿌리 깊은 '5·18 왜곡'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상정된 '5·18 역사 왜곡처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호남과의 동행'을 외쳤던 국민의힘은 심의 과정에서 계속 탄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5·18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서양화가 이경현의 작품 '컨센트레이트'(Concentrate, 2014) 속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 접했을 때 먼저 떠오른 건 '학부모'였다. 작품은 어떤 행사장의 객석 풍경을 담고 있다. 모두 앞을 응시하고 있는데, 각양각색의 옷차림으로 열을 지어 앉아 있는 그들의 무릎 위에는 동일한 흰 종이가 놓여 있다. 무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화폭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시 설명회나 강연회 등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엔지 입시 설명회 혹은 공부 컨설팅 관련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저의 자에 앉아 있는 깨알처럼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아이와 함께 '입시공화국 대한민국'을 헤쳐 나가는 부모모일 거라는 생각에 잠시 아득해졌다.

고생하셨네요, 모두

시대에 따라 본고사·학력고사·수능 등 이름은 달라졌지만 대입 시험의 또 다른 주인공은 학부모들이다. 신문에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사진 역시 절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는 어머니나 시험장 교문 앞에서 절실한 기도를 바치는 이들의 뒷모습이다. 시험이 끝난 후 학교를 빠져나오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고 꼭 안아 주는

엄마·아빠의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닥친 올해, 45만 명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유례없는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는 날이 많았고, 확진자 소식이 들려올 때면 가슴을 졸여야 했다. 마지막까지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을 터. 수능 전 날에도 올해만큼은 손을 잡아 주거나 등을 다독여 주며 오랜 수고로움에 대한 위로로 전하지 못한 채 서로서로 문자나 전화로 그 마음을 대신했을 것이다.

드디어 오늘은 수능시험 날이다.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칸막이가 자에 앉아 있는 깨알처럼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아이와 함께 '입시공화국 대한민국'을 헤쳐 나가는 부모모일 거라는 생각에 잠시 아득해졌다.

오랫동안 마음 졸이며 고생한 수험생들. 그들과 하루하루 함께한 학부모와 선생님들. 모두 애쓰셨다. 오늘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인생이 늘 행복하길 바라며, 안드레아 보첼리와 셸린디노 그리고 리베라소년합창단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 '기도'(Prayer)를 전한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